

## <기쁨과 슬픔의 경계>

세상이 감정을 잃어버린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감정이라는 걸 살면서 단 한순간도 느껴본 적 없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 말이다.

아까 약국에 들러서 약을 하나 사왔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약은 우리에게서 '감각'을 하나 가져가는 대신 '감정'을 하나 선물해준다.

덕분에 '악마의 거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뉴스에서도 매일 이 약에 대해 떠들어대고, 약을 광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부터 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매일같이 전쟁이다. 어디서 처음 등장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감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작은 씨앗이라고나 할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웃음은 기쁨.. 눈물은 슬픔.. 감정이란거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르겠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해질 뿐이다.

이 조그만 약은 나한테서 뭘 가져갈까. 그리고 난 이 조그만 약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들려..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알약이 나한테서 소리를 가져갔다.

눈이 간지럽고, 뭔가 차오르는 느낌. 알고 있어. 이건 '눈물'이다. 눈물... 내 뺨에 느껴지는 이게 눈물이라 는거지..?

확실했다. 이게 슬픔이라는 걸.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입꼬리가 주체되지 않는다.

세상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고,

난 이 고요 속에서 선물받은 감정을 온전히 즐기는 중이다.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건 그리 신경쓰이지 않는다.

그저..

행복하다.